

경기도

‘남한산성 닭죽’ 9개월만에 2만1천개 판매



경기도 성남시가 브랜드 음식으로 개발해 시범 판매 중인 ‘성남 남한산성 인삼닭죽’이 9개월 만에 2만1천여개가 팔리는 등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남한산성 주변 닭죽촌에서 판매하는 닭죽을 즉석조리 식품으로 개발, ‘남한산성 인삼닭죽’이라는 브랜드를 달아 지난해 11월부터 분당 AK플라자, 시청 매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내놓았다.

285g 들이 캔에 담겨 한 캔에 2천350원~2천600원에 판매된 이 닭죽은 지난 8월 20일 현재 시판 9개월 만에 2만1천개, 5천만원 어치가 팔렸다.

특히 올해 상반기 AK플라자에서만 7천538개가 팔려 참치죽, 단팔죽, 야채죽 등 같은 기간에 AK플라자에서 팔린 다른 즉석조리식품의 판매량보다 7~10배 앞섰다.

성남시 관계자는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남한산성 인삼닭죽이 단기간에 높은 판매실적을 올린 것은 성남시가 품질을 인증해 식품의 신뢰도를 높였

고, 100% 국내산 재료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먹을 거리 불안을 해소시킨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범 생산량이 거의 팔림에 따라 수요량을 분석해 추가로 닭죽을 생산하는 한편, 닭죽촌 식품업자들로 구성된 유통전문업체를 설립해 유통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남한산성 입구 주변에는 1970년대부터 닭죽 판매업소가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 38개 업소가 성업 중이며, 남한산성 닭죽은 시민이 즐겨 먹는 향토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즐겨먹는 지역 향토음식인 닭죽을 지난해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해 브랜드음식 제품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강원도

화천, 향토관광 음식메뉴 32종 공개

화천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전시·시식하는 연구용역보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화천군이 지난 8월 28일 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보고회에서 향토관광음식개발 메뉴 32종이 선보였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행사장에 차려진 오이 냉국수와 오이 상큼만두, 호박 궁중냉채, 단호박 웰빙파이, 토종닭 연잉구이 등 5종의 향토관광음식 음식들을 시식하고 맛을 평가했으며, 화천봉어섬빵, 곰취양배추김치, 곰취칼면, 곰취맛장아찌 등을 보며 음식을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 시도소식

특히 화천이 자랑하는 블루베리를 이용한 블루베리찐케익도 관심을 모았으며, 메기영양찜과 염소보양전골은 중년 남성들의 인기를 끌었다.

토종닭연잎구이와 약선토종삼계탕, 연잎오미자김치, 매운볼토끼, 산초향의 토끼요리도 참가자들의 발길을 불렀으며, 인삼공국냉채도 인기있는 식단중의 하나로 꼽혔다.

이번 연구구역보고회는 그동안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음식이 없던 화천군이 지난 5월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 용역을 의뢰해 지역농산물을 이용해 개발한 메뉴를 선보이는 자리로 꾸며졌다. 군은 이들 메뉴 중 호응이 높은 메뉴를 지역 대표음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양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총력

양구군은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31일부터 오는 9월 25일까지를 추계 가축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내 소, 돼지, 개, 닭 등 38만여 마리에 대해 예방접종에 나선다.

돼지와 닭은 사육농가가 공급받은 백신으로 농가에서 직접 예방접종하고 소, 개 등 그 외 가축은 예방접종요원을 2개반으로 편성, 마을별로 순회하며 접종할 예정이다.

또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사육목적이 아닌 애완동물들도 단 한마리도 빠짐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정중메아리(반상회보),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양구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광견병 발생지역이고 최근 개에 의한 교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

정으로 공수병 발생 차단을 위해 사육하는 모든 개에 대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

## 충청남도

### 천안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천안시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악취 저감(低減) 대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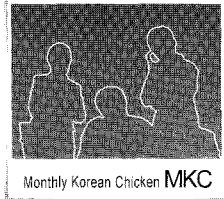
총 사업비 6억원을 들여 오는 9월까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개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악취 저감 사료첨가제 지원, 액비저장조 설치비 지원 및 액비살포조직 육성지원 등이다.

개별 농가에 설치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2억 2천만원을 들여 분뇨자원화 시설 4곳, 정화방류시설 1곳과 악취방지시설 1곳 등 모두 6곳을 설치하고,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악취 저감 사료첨가제는 돼지, 닭·오리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36톤을 지원한다.

또한 가축분뇨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3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비 5천만원을 지원하여 환경보전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액비살포 조직 육성을 위한 액비 운반탱크와 액비 살포장비 등에 2억원을 지원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경상남도

### 통영 통계청, 내달 초 가축동향조사 실시



동남지방통계청 통영사무소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가축동향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축산정책수립과 축산부문 연구, 축산경영자료, 국제통계비교자료 제공을 위한 것으로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의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에 대하여 일정규모 이상 사육농가 및 표본조사 33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공무원이 농가를 직접 방문조사하게 된다.

방역상의 이유로 농장출입이 제한된 농가의 경우는 농가의 동의를 얻어 전화,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한 비면접 조사를 혼용하여 조사하게 된다.

통계청 통영사무소 관계자는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농가의 정확한 답변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비지정농장은 소는 3년간, 돼지·닭은 2년간 주기적인 질병검사와 축산물 위생검사, 지속적인 농장 관리를 통해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정농장으로 인증한다.

이번 실태 점검 결과 우수한 농장에 대해서는 가축질병 청정농장 간판을 부착하여 참여농가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외부인에게 청정농장임을 홍보하여 지속적인 농장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미흡한 농장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하여 청정농장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청정농장 인증사업 추진으로 축산농가의 방역·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농장 주변 조경 등으로 농장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질병 관리와 축산물 위생검사, 사육단계에서의 청정성을 강조하여 타 지역 축산물과 차별화 도모,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지역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상북도

### 영주시, 가축질병 청정농장 실태점검

영주시는 지난 7월말부터 8월말까지 한달간 가축질병 청정농장(171개소)을 순회 방문하여 소독실태, 가축분뇨 처리 및 농장 주변 조경, 가축 거래 기록 유지 등 종합적인 방역·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시는 작년부터 전국 시·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가축질병 청정농장 인증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124개, 2009년 47개를 포함해 171개 농장에 대하여 청정농장 예비지정을 했다.

## 전라남도

### 종계·부화장 17곳 닭 질병 모니터링 검사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계란을 통해 전파되는 닭 질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2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도내 종계장을 비롯한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닭 질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내 종계장 12곳과 부화장 5곳에서 계란을 통해 전파되는 전염병의 감염실태를 파악하고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산란계와 육계 사육농가 등의 질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검사 대상 질병은 뉴캐슬병을 비롯해 가금티푸스, 추백리, 마이코플라스마병, 전염성빈혈, 뇌척수염,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등이며 검사 방법은 농장 계사별, 계군별 혈액을 채취해 항원·항체검사를 실시한다.

축산기술연구소는 이번 검사결과를 분석해 종계장 및 닭 사육농가의 닭 질병 감염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방역조치 및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 닭 사육농가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조상신 소장은 "닭 질병 청정화 유지를 위해 농장 경영자 스스로 정기적인 소독과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하고 사양관리 및 환기 등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며 "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종계장 등 방역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해 종계장과 일반 양계농장 청정화 유지를 위해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내에서는 35건의 닭 질병이 발생했다. 종류별로는 뉴캐슬병 1건, 고병원성 AI 1건, 저병원성 AI 4건, 가금티푸스 7건, 전염성기관지염 9건, 전염성F낭병 3건, 마렝병 10건 등이다.

### 담양군, 친환경 축산물·HACCP 인증 추진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메카를 지향하고 있는 담양군이 한우와 돼지, 닭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인증으로 승부를 걸고 나섰다.

군은 축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13일 군청 회의실에서 HACCP 인증 추진 축산농가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HACCP 컨설팅업체 선정 제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군 관계자의 '2009년도 가



축 사육농가 HACCP 인증 추진 방향'에 관한 설명과 함께 다민동물병원을 비롯 애니인포넷, 스페이스, 한길경영기술원 등 4개 컨설팅 업체들의 설명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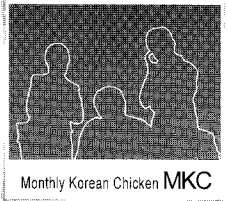
HACCP 인증 추진 축산농가들은 앞으로 이날 설명회를 토대로 컨설팅 회사를 선정, 이들 회사의 지도아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친환경축산물 인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란 식품의 원자재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따라서 날로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축산물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인증이 필수 조건으로 알려져 있다.

### 전라북도

김제시, 가축분뇨처리 현장 컨설팅 실시  
김제시 용지면 축산밀집지역 가축분뇨 해결방안



을 모색키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이 적극 협조에 나선다.

지난 8월 8일 수원에 소재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장 강희설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 7명이 용지지역을 방문, 현장에서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 축산환경을 살핀 후 녹색기술실천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 자리에서 축산과학원 강희설 과장은 새만금수질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시설투자비 지원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가축사육제한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농업기술센터 김성일 소장은 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용지면은 187만㎡ 면적에 265세대 82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25세대 308명이 지난 1955년부터 돼지, 닭 등 117만6천여 마리의 가축을 사육해 온 지역으로 질병, 가축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이 지역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내부적으로 부시장을 중심으로 매월 2회 정례회를 통해 가축분뇨처리 대책,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 마을 환경개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김제시는 가축분뇨 무단방류를 막기 위해 액비저장탱크 지원, 휴·폐업 축사 매입을 통한 녹지공간 조성, 무단방류 단속강화, 새만금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투자비 확보 및 가축사육두수 증가 억제 등을 검토 중에 있다.

### 남원시, 축산업등록 유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4년부터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촉진 및 축산정책 추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무관심으로 축산업등록제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축산업등록은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을 대상업종으로 소(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에 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남원시 전체 축산농가 2,089호 중 50.4%인 1,053농가만이 등록을 완료했다.

축산업등록 의무등록대상 사육업은 축사면적 기준 소 300㎡이상, 돼지 50㎡이상, 닭 50㎡이상, 오리 50㎡이상 면적의 축산농가이며, 그 이하 소규모의 축산농가는 희망자에 한하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축사와 가설건축물 역시 축산업등록이 가능하다.

남원시는 9~10월을 축산업등록 집중처리기간으로 정하고 미등록 축산농가의 등록신청을 유도하여 미등록으로 인한 각종 행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의무등록대상농가 중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는 향후 각종 축산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사법처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할 방침으로 기간 중 전 의무등록 대상농가가 등록을 필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공기를 이용한 냉·난방 사육농가 늘어  
지하공기를 끌어올려 농작물 재배나 돼지, 닭



## 사·도·소·식

사육 등에 이용하는 농가가 부쩍 늘고 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지하공기를 끌어올려 비닐하우스나 축사의 난방에 이용하는 농가가 모두 412개소로 집계됐다고 지난 8월 11일 밝혔다.

지하공기 이용은 2005년 1개 농가가 시작한 이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도농업기술원은 농가당 지하공기 시추비용 1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하공기 이용 냉·난방 기술은 직경 30cm의 파이프를 지하 50m까지 뚫은 뒤 지하공기를 흡입, 송풍기를 이용해 하우스 시설로 보내는 방식이다. 화산섬 제주에서만 가능한 특화기술로 연중 14~19℃인 천연 지하공기를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냉·난방비 50~80%가 절감되며, 지하공기에 함유된 탄산가스로 고품질의 농작물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 경우 해안가를 제외한 85% 지역에서 지하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

여름철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온도는 35~40℃까지 치솟는다. 여기에 지하공기를 보내면 30~35℃로 낮아진다.

식물의 탄소동화작용에 필요한 탄산가스는 대기보다 지하공기에 최고 10배가 많다. 양돈장은 지하공기로 온도를 낮추고 소음을 줄이자 무더위 폐사율이 뚝 떨어졌다.

도농업기술원 박재권 지도사는 “지하공기는 제주도의 특유한 천연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농가 지원 다양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제주산 축산물, 거침없는 고공행진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재개되면서 제주산 축산물이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8월 10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현재 한우의 경우 600kg 기준 673만8천원, 돼지의 경우 100kg 기준 41만원, 닭고기는 4만3천원/(kg)에 거래되는 등 최근 제주산 축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돼지고기는 공판장 경매 제도 시행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게다가 닭고기·계란 역시 여름철 소비 특수와 도내 관광객수 증가로 인한 소비확대 등으로 모든 축산물 가격이 추석전까지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내 축산 농가는 웃음꽃이 활짝 폈다.

한편 도는 이같은 축산물가격 고공행진을 위해 수입산과 차별화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선도농가의 시설자금 및 HACCP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돼지·닭 사육농가의 고품질 생산 장려지원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가축방역 마일리지 제도 시행

제주도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차단활동과 관련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이번달부터 시행한다.

도는 일본이 제주산 돼지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높이기 위해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상황을 수치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는 마일리지 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8월 11일 밝혔다.

차단방역 상황은 공수의사가 2개월에 1회 이상



농장을 방문해 계사 및 돈사 입구에 발판 소독조 설치 여부를 비롯해 소독기 작동, 소독 기록부 작성, 농장입구 출입제한 표시, 질병감염 의심축 신고, 병성 감정의뢰 횟수 등을 파악해 일정한 점수를 주게 된다.

도는 마일리지에 많이 적립한 우수 축산농가 중 상위 5%에 대해서는 내년 축산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줄 방침이다.

### 가금 전염병 청정화 선언 추진

제주시는 가금산물의 청정지역 유지와 제주산 축산물브랜드 파워 업그레이드를 위해 가금 전염병 청정화 선언을 추진 중에 있다고 지난 8월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마지막 단계 사업추진으로 상반기에 이어 9월부터 10월까지 2차 뉴캐슬병

(ND) 일제조사 및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가금사육농가 84농가의 157만수에 대해서는 가검물 채취 및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닭 뉴캐슬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ND백신(뉴캐슬병) 500만수 분에 대해서는 부화장, 양계농가, 오리농가 등 상반기에 공급을 완료했다.

이번 일제검진은 관내 공수의사가 가금농가를 직접 방문, 농장별 사육환경을 조사하고 모니터링 검사 차원에서 가금혈청, 인후두 및 총배설강 스왑으로 가검물을 채취,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 항원·항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올해 2차 일제검진 결과에 따라 가금전염병 청정지역 선포를 위한 체계적 데이터를 마련하고, 제주지역 사육기반의 여건 조성에 따라 단계별로 청정지역 선언을 추진키로 했다. 

### 〈인사소식〉

#### 농림수산식품부

2009년 8월 28일자

#### 〈과장급 전보〉

○ 장관비서관	김인중
○ 홍보담당관	최명철
○ 정보화담당관	배상두
○ 지역개발과장	김영준
○ 농촌사회여성팀장	서재연
○ 유통정책과장	조재호

○ 축산정책과장	김정욱
○ 소비안전정책과장	박병홍
○ 친환경농업과장	신현관
○ 지도안전과장	서해동
○ 국립식물검역원	노수현
영남지원장	